

무공수훈자회 총회 김정규 회장 선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지난 달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김정규 후보가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사업성과 평가 및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함께 승인했다.

김정규 신임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장례의전선상 사업의 내실화와 지원 횡수를 확대하고, 한국과 베트남 민간외교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에 대한 공감



대를 확산시키고, 회원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해병대소위로 임관해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2014

년부터 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9년에는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최연소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광복회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달 26일 14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던 최연소 독립유공자 주재년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주 열사의 모교인 여수 돌산초등학교를 찾아 기념식수를 했다.

1943년 9월 주재년 열사는 조선독립의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같은 해 도로 주변 바위에 ‘조선 일본 별국’ ‘조선만세’ 등 일제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글귀를 새겼다.

이를 발견한 일경이 글귀를 새긴 사람을 찾기 위해 주민들을 협박하자 그는 자수해 징역을 선고받아 투옥됐으며, 복역 중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이듬해 순국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서면 총회 개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회장 박운옥)는 코로나19 상황과 고령의 회원들의 건강을 고려해 2021년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처리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지난해 주요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올해 주요 추진사업과 예산심의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발송해 동의를 받았다.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이전 서울 길동 호국영웅보훈회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회장 노무식)가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 3층(강동구 길동 350-1) 호국영웅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호국영웅보훈회관은 지난 1월 입주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함께 보훈단체의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6·25참전유공자회는 2, 3층을 사용한다.

이전은 지난달 25일 완료했으며, 대표 전화번호(02-423-9844)는 이전과 동일하다.

새로 입주하는 호국영웅보훈회관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현충원 지킴이 발대식 개최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회장 김영수)는 지난달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전현충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수 회장, 전종호 대전현충원장, 유족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충탑 참배한 후 묘역정화를 실시함

으로써 올해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수 회장은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하고

계시는 대전현충원을 우리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호국의 성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



며 특히 이곳이 전후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귀감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 · 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찾기 캠페인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1661-7625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무공훈장’